

나주 다시면 '천연염색 쇼핑 1번지' 꿈꾼다

10개 전문업체 1차 입주...제품 전시·판매

15억 들여 개별 공장·공동작업장 등 갖춰

나주시 다시면 천연염색공방에 입주자가 거의 완료돼 '천연염색 쇼핑 1번지'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27일 나주시와 천연염색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공한 천연염색공방에 최근까지 12개 공방이 입주해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해 전시 판매하고 있다. 천연염색공방은 총사업비 1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별공장 14실과 공동작업장, 다목적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공방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천연염색 전문 10여개 업체를 1차로 입주시켜 천연염색의류를 비롯한 가죽제품, 완구류, 침구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나주시와 천연염색문화재단은 '색다른 공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주

업체 중 다문화공방 '에릭'과 장애인공방 '꽃물담쟁이'에 향후 작품개발 디자인 교육, 컨설팅과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공방 '에릭'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가이 에밀리아씨(나주시 왕곡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3년전부터 동산대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축적한 천연염색 기술을 각국의 전통의상 등에 접목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방인 '꽃물담쟁이'는 나주시 삼영동 소재 복지시설인 '성산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운영하는 공방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도 운영돼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되고 있다.

성산원에 휴이순 복지사는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천연염색이라는 지역의 특색 있는 분야에서 창



나주 다시면에 들어선 천연염색공방은 총사업비 1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별공장 14실과 공동작업장, 다목적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적인 예술·문화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며 경제활동에도 참여해서 재할 자립의지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윤여정 전라산업과장은 "천연염색 공방은 나주를 대표할 천연염색 클러스터의 주요 시설이 될 것"이라며 "4월에는 '천연염색과

약'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마련해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장성 편백나무 분재 생산 적극 추진

농기센터, 홍길동축제 100여점 전시 계획도

장성군민들이 편백나무를 이용한 분재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7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센터 지도를 받고 있는 백양분재 연구회 회원들이 센터 내 분재학습포에서 어린 편백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는 편백분재(사진) 생산에 나섰다.

아직까지 관상수로 볼 수 있는 분재 화살판이 없어 2년 전부터 연구회와 함께 편백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회는 오는 5월24일부터 개최되는 장성홍길동축제에 이



번에 개발한 편백분재와 더불어 분재 10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장성=김홍호기자 yongho@

한국농업 아이콘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월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서

관람객 40만명·300억 소득창출 기대

한국농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한 제11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첫 국제박람회 개최 이후 3년 단위로 열리는 국제 박람회와의 중간에 열리는 국내박람회다. 국제농업박람회는 3년 주기로,

국내농업박람회는 매년 연다. 올해 박람회는 국제박람회에 비해 예산과 행사규모는 적지만 전 직원이 참여해 불거리, 체험거리 등을 연출하는 등 농업인과 도시소비자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하는 종합농업박람회로 열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 박람회 목표를 관람객 40만명과 300억원의 소득창출로 잡고 있다.

산업공촌관과 생명농업관 등 10개 전시관과 친환경 농특산물 등 판매장터 2곳, 농산물 수확 등 체험·공연행사(22개), 가을정원 콘서트 등 특별행사(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해 국제농업박람회 때 관람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열대 식물원과 누에·곤충을 활용한 산업공촌관 등을 확대한다.

박민수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귀농 희망 도시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박람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북 교사들 "시골학교 가고 싶다"

승진 등 고려...갈수록 도시학교 기피 심화

최근 들어 교사들이 도시지역 학교보다는 농어촌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010년 순천진보대상자 중 전주지역 학교를 희망한 교사의 비율은 80명중 51명으로 63.8%에 달했다. 이후 그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11년에는 52.6%, 지난해에는 48.5%로 감소하더니 올 3월1일 정기인사에서 37.7%로 폭 떨어졌다. 4년만에 무려 26%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교사들의 도시학교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주된 원인으로 도시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농산어촌

보다 많아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큰 점을 꼽고 있다. 또 도시지역 평균 수업시수가 주당 평균 20시간 정도로 농어촌 학교보다 많고, 현재의 승진제도하에서는 도시지역 근무가 승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주시에 근무하는 B교사는 "한 반의 학생 수가 시골학교 학생수보다 10여명씩이나 많은 35~40여명에 달해 일일이 지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면서 "심지어는 떠들거나 잤다하는 학생을 지적하면 갖은 욕설을 하며 대들기 일쑤여서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실토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전북

시조 배우는 다문화가정 주부들

순창지역 일본·필리핀인 등 4개국 20명으로 구성 시조합창단 '화제'

순창군에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 시조합창단이 창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다문화시조합창단은 일본 16명을 비롯해 필리핀 태국, 한국 등 4개국 20명으로 구성된 (사)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 유재복 회장으로부터 1회 시조합창을 배우고 있다.

합창단이 창단하게 된 데는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 주부들이 한국에 이주해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창단원들은 시조합창을 통해 진정한 한국문화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창단 반장인 시라이 요시에(45)씨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전통문화를 먼저 알고 이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써 다문화여성들이 꼭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시조협회 유재복 순창군지회장은 "시조의 명맥이 흐려지는 현 사태에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시조배우기에 높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들과 동화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다문화가정여성시조합창단은 오는 11월 순창군에서 주관하는 전국시조합창대회에서 특별공연에 나서고 개별적으로 전국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맞춤형 수박 생산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정읍시, 100여명에 특강

고창군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12년도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 사업 중 하나인 U-맞춤형 수박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 올해 수박 재배에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박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크기·당도·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창농업기술센터와 수박재배 농가 공동 참여로 완료했다.

이강수 군수는 "크기, 당도, 출하시기, 물량 수급 조절이 가능하므로 대형마트 등 시장에서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수박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와 소상공인진흥원 정읍센터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이 지난 26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김요한 정읍센터장의 '시장변화와 마케팅'을 주제로 한 특강과 소상공인의 지원제도 및 경영진단,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은 지난 14일 정읍시와 소상공인진흥원 정읍센터가 가진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육군 등 9개 기관은 27일 군산항 3부두에서 화학물질(아세트산에틸) 유출사고 대응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헬기 1대, 선박 6척, 오일펜스 500m, 150여명의 인원 등이 투입됐다. /연필뉴스

강진 명문 성요셉여고 마저...

50년 여성교육 산실...내년 신입생부터 모집 안해

강진을 소재 강진 성요셉여자고등학교(교장·노혜나 수녀)가 최근 열린 학부모 총회에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50여년동안 여성교육 산실이었던 성요셉여고가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성요셉여고는 학부모총회에서 "매년 신입생 모집이 어렵고 올해는 3학년 모집이 그쳤고 몇 년안에는 1학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재단(씨튼수녀회)에서 국·공립학교 위주의 지원형태, 지역거점고 선정 제외대상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학생들과 지역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성요셉여고는 지난 2009년 5개 반이던 1학년 학급수가 지난

해 4개 반으로 준데 이어 올해는 3반밖에 모집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해남고등학교가 1학년 신입생을 줄이는 바람에 일부 학생들이 전학을 와 간신히 학생 수를 채웠다.

강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1128명인 관내 중학생 수가 2016년에는 805명으로 323(28.6%)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에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가 139(9.9%)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성요셉여고는 1962년에 성요셉금통여자정고등학교로 개교한 뒤 졸업생 1만5000여 명을 배출했으며, 1988년에는 보통과 12학급, 상업과 15학급 모두 27학급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 있는 학교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죽순저장·죽순식초 이용 기능성 식품 개발

담양군, 연구기관 모집 상품화 나서

담양군이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상품화 개발을 위해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란 주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주관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연구과제는 죽순저장(유통) 연장 기술개발과 죽순 식초를 이용한 식품 개발 등 2개 분야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식품 관련 연구소와 대학이 주관 연구를 주도하고 관내 죽순관련 식품 생산업체를 함께 참여시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상품화와 연결

할 예정이다. 또 담양군과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는 이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향후 죽순을 활용한 식품 상품화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관련 대학이나 식품전문연구소는 오는 29일 까지 담양죽순상품화사업단으로 연구과제 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단신

고창 농기센터, 복분자 재배기술 교육

고창군은 2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복분자 신규 식재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재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복분자 신규식재 및 관리, 연작장해 개선, 장마철 관리 등 고사율 감소방법 위주로 진행됐다. 신규농가 뿐만 아니라 재식재 농가 참여율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신규 식재농가 고사

율 경감을 위한 재배기술 및 병해 방제 교육, 현장 집중 개인별 직접 재배 기술 지도(일제출장, 재배기술 리플릿 제작 배부 등)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전국 최고의 복분자 고장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복분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기술 교육, 보조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철수기자 knews@

전주~군산간 2개 차로 28~31일 부분통제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27일 "보수공사로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호) 노선 중 2개 차로를 28~31일 부분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군산시 옥산면 옥산3교·옥산육교 보수공사 때문에 이뤄지며 3차로 중 1차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부분통제 시간은 전주에서 군산 방향은 28~29일 오전 9시~오후 6시, 군산에서 전주 방향은 30~31일 새벽 5시~오후 6시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신호수를 배치해 우회도로인 공단대로(6.5km)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치매 예방·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호응

건강한 장수를 지향하는 순창군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3개월에 걸쳐 2개 경로당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1회씩 총12회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선별검사 및 우울증 검사를 시작으로

원예요법과 운동요법, 음악요법, 공예요법 등과 치매인식개선, 우울증 예방 교육 등 매주 다른 주제로 이뤄졌다.

특히 인지기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 해소로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 민·학·관 참여 건축행정발전 연찬회

군산시는 지난 26일 시민방위상황실에서 민·학·관이 참여하는 건축행정발전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군산시 건축사 협회장의 관내 건축사·건축사보 등 설계 분야 전문가,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등 학계 관계자, 문동신 군산시장

을 비롯한 군산시 건축 직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국립 군산대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건축을 주제로 수해양 견출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